

제목: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예레미야 39장 11-18절

예레미야가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훈한 사랑을 확인하고 힘 있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고통에도 하나님의 \_\_\_\_\_이 있습니다.
- 2) 끝까지 믿음으로 \_\_\_\_\_해야 합니다.
- 3) 결코 \_\_\_\_\_ 않으십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들을 중심으로 개척 된 교회 (뉴저지 지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 (Hosea 10: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 다 갈 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예레미야 39장 11-18절 .....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Jeremiah 39: 11-18 구약 1116 페이지 Presider
- 말 씬 .....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 김성민 목사  
 Message God Who loves you Rev. Kim
- 찬 양 ..... 435(492)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 갈 이  
 Praise Thou, My Everlasting Port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 다 갈 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 도 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 갈 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 설 교 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의 생활화)

이것이 얼마만인가?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일을 만들고 말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상 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만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던 지난 7개월이었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더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살아야 했고, 산물로 인하여 8일간 담요에 덮여서 생활하는 것 같이 지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우울 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다.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말이다. 이파리가 새로 날 때가 엇그제 같은데 혼란과 우울한 가운데에서도 벌써 단풍이 물들고 있었던 것이다. **New Normal (새로운 정상의 생활화)**에 맞출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한 가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 과연 **New Normal** 인가?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던 그것이 혹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되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악수도 못하며 같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딪힘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마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을이 찾아와서 단풍이 드는 것과 같다.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지금 이 오히려 기회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상적이어서 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 중심, 진실, 창회의 눈물, 사랑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 회개, 말씀, 은혜, 순종, 새로움, 무릎 꿇음, 헌신이라는 말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7개월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위하여 우리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전에 것을 되돌려 놓는 “정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이고 헤어지자. 그것이 우리를 이 세대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는다.

다음 도주 동안 마음껏 단풍이 들텐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껏 물들고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껏 물들 수 있도록 마음을 청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 만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2. 기도의 삶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교육부 사역의 시작되도록
- 6)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김예식: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임영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 7)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섬기는 프랑스 교회의 부흥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 개척과 섬기는 목회자들의 안전  
깊은 부리교회: 교회가 굳건히 부흥하도록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실에서 늘 친교가 있습니다.

### 4. 주일예배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5)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6)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7)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8) 하지만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합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